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사회 양극화 '신빈곤층 문제' 뭐가요?

탈출구 잃은 소외계층 늘면 사회혼란 확산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과거의 빈곤층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신(新)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신 빈곤층이라는 계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신빈곤층'이란 무슨 뜻인가요?

신 빈곤층은 중산층에서 탈락해 빈곤층에 새롭게 편입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상대적인 풍요를 경험한 뒤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으로 볼 수 있죠.

신 빈곤층은 IMF 이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풍요를 경험해본 이들이 심각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아 빈곤에 대한 내성(耐性)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예를 들면,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한 직장인, 가장 역할을 맡은 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구 중 빈곤층 비율이 IMF 당시인 2000년 8.21%로 가장 낮았으나 2002년엔 4.04%까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높아져 5.27%, 2004년 9.63%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신 빈곤층이 늘고 있는 셈이죠.

2 빈곤층과의 차이는?

전통적인 빈곤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일할 능력이 없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해 어렵게 사는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나 신 빈곤층은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능력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빈곤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신 빈곤층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3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형성된 신 빈곤층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극단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 빈곤층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곤상태에 놓인 '근로 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들은



서울역 노숙자들.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신 빈곤층'이다.

대부분 카드빚 등에 쫓기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달리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직장에서 퇴출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일을 전전하곤 합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리거나 공인중개사 등 소규모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곤 하죠. 별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종국엔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신 빈곤층이 IMF 체제 이후 급변한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불량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 여성, 영세 자영업자 및 농어민, 조기 은퇴자, 단기 실업자 등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빈곤에 허덕이는 '근로 빈곤층'이 신 빈곤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 빈곤층 계층이 임시변통으로 이용한 신용카드 대출 때문에 전 가족의 빈곤을 가속화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20·30대 청년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탈출구를 잃은 신 빈곤층이 자살은 불

론이고 납치, 강도 등 각종 범죄에 빠져들어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과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그것이죠.

해소 방안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각기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 빈곤층의 문제를 '양극화의 문제'로 이해하면, 즉 정부의 격차의 문제로 보면, 부자한테서 세금을 더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면 새로운 빈곤층 증대의 문제로 이해하면, 그 해결책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켜 이들에게 소득 기회를 높여줄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떻게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늘려 이들에게 고용이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인가, 이들 신 빈곤층에게 직업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과 자활능력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등의 방향의 결론이 도출되겠죠.

이렇듯 신 빈곤층 문제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시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 빈곤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생각이 일치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연도	가구	인원
	2002	20,160	46,957
	2003	21,695	48,503
	2004	23,865	52,419
	2005	26,574	58,117
2006.2현재	26,960	58,682	

차상위계층	연도	가구	인원
	2002	3,836	11,255
	2003	6,671	13,457
	2004	15,631	34,545
	2005	15,185	33,980

자료: 광주광역시

결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신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는 신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정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5 외국에는 없나요?

신 빈곤층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독일도 최근 신 빈곤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DIW: 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가 지난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상대적 빈곤 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지하철 역 앞을 지나면 구걸하는 노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베를린 시민 8명 중 1명, 어린 4명 중 1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이고, 사회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비율(7.3%)은 전국 평균(3.5%)의 두 배가 넘게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독지역의 빈곤층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독일 경제가 통일 비용 등으로 인해 휘청거리면서 실업률이 크게 늘어,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죠.

하와 Hi Teen 공부합시다

신빈곤층은 중산층에서 탈락해 빈곤층에 새롭게 편입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빈곤층 어떻게 분류하나

금전적 결핍 여부로 판단

'사회적 배제' 점차 중요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결핍 상태를 말한다. 빈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주관적 빈곤'이란 개념도 새로 생겨났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금전적인 결핍 여부만으로 빈곤을 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 및 이의 동태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빈곤의 분류 기준과 종류

▲ 절대적 빈곤(絶對的貧困, absolute poverty) =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소득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혹은 '극빈층'이라고 한다.

▲ 상대적 빈곤(相對的貧困, relative poverty) =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통 가구 총소득이 중위층 평균소득의 40~50% 이하에 속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가구총소득이 중위층 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은 '상대적 빈곤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주관적 빈곤(主觀的貧困, subjective poverty)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 차상위 계층(次上位階層)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 가구 기준 월 113만6천원)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무자 이수재원장 직필기술전리**

가발

심는가발 탄생!!

이용기능장 원장 이수재원장

대산가발남녀맞춤예술원

출장뷔페 · 도시락남품 · 위탁급식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성당, 교회 결혼식 음식, 장례포함식, 개업식, 기념식

파티외식산업

사회 시세 출장전문, 제곡대회, 어우회, 식탁, 도시 무료지원, 연회장 주차장 준비

문의: 025-0085-7